

한국에 태풍 못 온다

2020년에도 어김없이 지켜진 구세주 5대공약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다고 했지만 전부 빗나간 태풍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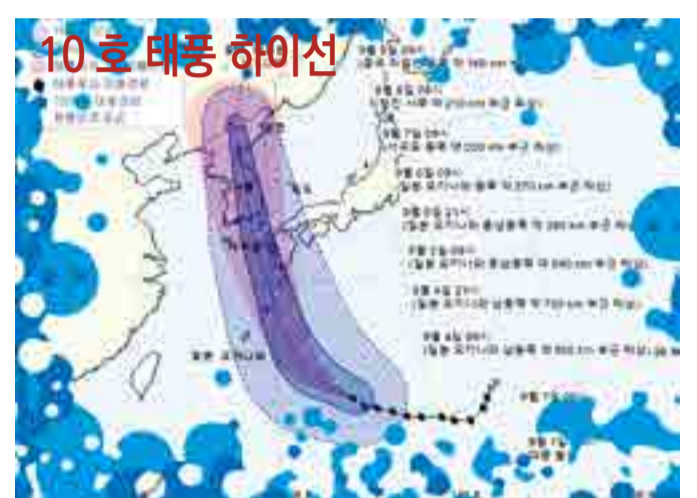
▲ 기상청 | 2020년 08월 02일 10시 00분 발표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10일 13시 00분 발표 제5호 태풍 장미(JANGMI)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29일 04시 00분 발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9월 04일 10시 00분 발표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22일 16시 00분 발표 제8호 태풍 바비(BAVI) 예상 이동경로

이래도!!! 구세주의 능력을 못 믿는다면?

바보 멧렁구리!!!

후에 태풍이 불면 침수가 되거나 강풍에 쓰러져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한국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유

셋째, 구세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다. 구세주가 출현했는데 그 구세주가 빈천한 국가 출신이라면 세계인들이 그 존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로 한국인을 굶주리지 않고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셨다. 한국이 잘 사는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먼저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어야 하는데, 풍년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일조량 등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걸 모르고 우연히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미개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세주의 능력을 절대 허황된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다. 부디 구세주 출현 소식을 기쁨으로 수용하여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 세계 인류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세주의 방주를 어서 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구세주는 왜 태풍을 막아주는가

구세주께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구세주라면 그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지 아무 능력이 없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5가지 약속을 하였다. 5가지 약속은 이렇다. 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② 한국에 태풍이 못 불어 오게 하겠다. ③ 한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④ 한국에 풍년들게 하겠다. ⑤ 남북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 약속은 모두 다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 이걸 보아 조희성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처럼 태풍을 막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구세주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구세주 조희성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 시절 배고픈 설움을 겪었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 또한 한국에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벼가 자라 곡식이 여물 떠나 여문

제 14 호 태풍 찬투가 한국을 비껴가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9월 7일 오전 9시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9월 18일 오전 9시 경 일본 나고야 남남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에서 온대성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태풍 찬투가 9월 12일 대만을 지나가면서 8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이어서 태풍 찬투가 상하이로 이동할 때 14일 중국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위험 지역이 저장성이기에 이곳의 주민 61만 명이 대피시켰다. 이번 태풍의 특이한 점은 13~16일까지 약 3일간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했을 때 이동 속도가 시속 5km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정체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과거에 유사한 진로가 거의 없는 이례적인 태풍”이라며 “상하이 부근에서 3일간이나 정체했던 태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9월 15일 세계 각국의 기상청들은 태풍 찬투의 세력이 쇠약해져 곧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9월 16일 태풍이 제주도 남쪽의 따뜻한 바다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 일본 쪽으로 향한다. 태풍 찬투 태풍이 9월 17일 규슈 후쿠오카에 상륙한 것은 1951년 기상관측을 한 이래 처음이다. 그리고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관통하던 태풍 찬투가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함으로써 일본 전역에 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유튜브 댓글 창에 일본 사람들이 “올해 많은 태풍들이 한국이 아닌 유독 일본만이 좋아하고 집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글을 올린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 673-4635
- 평택제단 : (010)5695-897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London : (0208)894-1075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